

회원사 동정

LG產電



혁신 "BEST 21" 선포

LG산전(代表: 李喜鍾)이 21C 초우량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BEST 21"이라는 경영 혁신 운동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BEST 21" 운동의 의미에 대한 전사적 공유와 성공적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창원공장(북지관 대강당)에서 선포식 및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다함께 BEST 21』라는 주제로 이회중 CU장을 비롯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BEST 21" 운동 추진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설명과 1만 산전인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BEST 21"이란 Basic, Empowerment, Speed, Trust의 머릿글자를 조합해 만든 용어로 그동안 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경영혁신 기법과 모든 경영혁신활동을 총괄하는 용어이자 그 자체가 또하나의 혁신이며, LG산전이 추진하는 여러 혁신활동의 핵심축이다.

"BEST 21"의 의미는 LG그룹의 경영방침인正道경영을 실천하고, 비전의 조기실현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다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고(Trust),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Empowerment)하며, 기본에 철저(Basic)하고, 혁신활동을 가속화(Speed)한다는 다짐으로 사내 여론수렴을 통해 도출된 개념이다.

이런 취지에 근거한 "BEST 21"은 사장으로부터 사원까지 1만 산전인이 창의적 사고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높은 경영성과와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혁신활동의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조직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신과 부서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업무현

장에서 자율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문제해결 활동이다.

LG산전의 "BEST 21"은 생산성 향상 등 경영실적 향상 뿐만 아니라 3사(LG산전, 금성계전, 금성기전) 합병으로 인해 출범한 신체제의 조기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각사가 다양하게 추진해온 혁신활동을 "BEST 21" 운동이란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함으로써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다.

LG산전은 "BEST 21" 운동의 조기 정착과 목적 달성을 위해 품질혁신, 생산관리혁신, A-CLASS, 사보 등을 통해 이번 혁신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회중 사장도 자신의 경영활동 중 최우선을 "BEST 21" 운동 지원에 두겠다고 밝히고, 혁신의 의미 공유와 확산을 통해 "BEST 21"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추진할 혁신활동 100여건의 테마 중 27개 부문에서 41건이 발표되었다. 41건의 혁신활동 모두 업무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점을 찾아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을 세우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현장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과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9월 1일 금성계전·금성기전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LG산전이 지난 '87년 사업 시작 이후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와 같은 호황은 LG산전의 매출구성이 전력설비(전체의 43%), 빌딩설비(전체의 43%) 등 국내 설비경기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상·하반기에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18.0%, 27.4%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LG산전의 관련 제품 매출은 각각 5.5%, 28.3%의 고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연관관계로 볼 때 올해 상반기에도 20%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감안하면 LG산전 관련제품의 내수 증가율은 41%로 급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산전의 지난 1/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예 비해 36% 증가한 3700억원을 달성했는데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상반기 매출은 7420억원으로 계획대비 10% 초과달성할 것이며, 경상이익 역시 18% 초과한 218억원이 예상된다. 특히 LG산전 제품의 매출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되는 과거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의 매출목표 1조5천억원 경상이익 630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음은 물론 LG산전 사업목표의 초과달성이 예상되는 등 최대의 호황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수요 폭증과 더불어 최근의 엔고는 LG산전의 해외사업에 결정적인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력기기의 경우 그동안 국내 수입업자들이 계량기기, 제어기기 등 전력기기 단체품에 대한 대일 수입선을 국내로 돌려 대부분의 매출 확대폭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부분 역시 엔고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생겨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이는 LG산전의 양사업부문인 전력기기사업의 95% 이상 국산화 달성과 빌딩관련 설비의 독자적인 사업영역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인한 제품 품질향상 등 경기 활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한 성과였다.

한편, 매출 급증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도 '규모의 경제효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LG산전은 생산시설의 확충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한편 사업전략도 기존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정책을 물고갈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 금성계전과 금성기전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LG산전은 그동안 유사사업을 3社가 각각 영위해 왔던 체제에서 벗어나 제조·판매가 일원화 되므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과 함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탄력성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新韓電機工業



ISO 9002 인증 획득

변압기 전문제조업체인 新韓電機工業(株)(代表: 朴吉相)가 ISO 9002를 획득, 전기공업계의 관록을 그대로 입증했다.

신한전기는 ISO 팀 4명과 각부서의 키맨을 주축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원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열과 성의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 품질인증센터로부터 변압기에 대한 ISO 9002인증을 획득하여 전기공업계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중견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신한전기는 국제화, 세계화를 겨냥하여 오래전부터 품질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굳힌 상태로 KS는 물론 품질경영 1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신한전기는 지난 '92년 공인 인증시험 면제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Q.C경영대회에서의 각종 수상 및 신제품 개발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내염형 일단접지 주상변압기 부상개발합격, 지상설치형 변압기 개발합격, 자기진단형 변압기 개발합격 등 지침없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번 ISO 9002의 추진은 단순히 인증획득만이 아닌 고객위주의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객관적 제품의 신뢰성확보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를 이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ISO 9002의 인증획득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에 불과하다」라고 표명하는 최고 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각오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 앞으로 전기공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日進電機工業



ISO 9001 인증 획득

日進電機工業(株)(代表: 金伸卓)가 전력금구류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서를 수여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일진전기는 이번에 IS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폭넓은 범위의 인증을 바탕으로 동분야 내수판매 및 수출에 있어 한층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진전기가 이번에 획득한 ISO 9001은 전기사업본부의 차단기 및 개폐기류, 배전반류, 발전설비류, 전력금구류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되며, ISO 9002는 주조사업본부의 알미늄 주물품, 산화아연 배리스터 등으로 총 7개분야에 30개품목이다.

일진전기 TQM사무국은 ISO시리즈 인증서 획득을 위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금년 3월까지 각부서 대표를 선출,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의 활동과 함께 외부지도기관인 '한국품질관리 기사회'와 컨설팅계약을 체결, 일주일에 3일씩 추진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ISO요구 스타일에 맞춰 내부업무규정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교육 및 내부감사를 통해 시스템 적용도를 체크하고 문제점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

LG電線



통합 배선시스템 사업 進出

국내 최대의 케이블 생산업체인 LG電線(株)(代表: 權煥久)가 통합배선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통합배선시스템이란 LAN(근거리 통신망)이나 WAN(광역 통신망), PABX(私設 교환기)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하나의 배선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으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LG전선은 종래의 방식이 전송 특성에 있어서 거리나 속도에 제한이 있고 업무 확장이나 조직 변경에 따라 별도의 배선 공사를 하는 등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 착안, LG전선이 가지고 있는 설계능력과 케이블 생산·설치공사를 일괄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선은 지난달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100Mbps급 UTP케이블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해 케이블과 약세사리 등을 수입해 설치 공사만 담당하

고 있는 외국 업체의 국내 대행사에 비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케이블 생산, 시공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시장 규모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이 통합배선시스템 시장에 국내 업체인 LG전선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동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Mbps급 LAN(근거리통신망)용 UTP케이블을 개발하고 美國 UL(미 보험업자 연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다.

UTP(無編造)케이블은 금융기관, 대학, 병원 등 각 분야에서 추진중인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AN 네트워크용으로는 동축케이블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 케이블은 부피가 크고 대용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점차 UTP케이블로 대체되고 있다.

100Mbps급 UTP케이블은 최근 급진전 되고 있는 정보 고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LG전선이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10Mbps급 UTP케이블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고 10배 이상 빠르다. 이 케이블은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적용시켜 부피가 작고 시공이 간편해 이동이나 확장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

LG전선은 최근 MUX용량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네트워크가 주로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폴리에틸렌 절연체를 난연 처리함으로써 케이블로 인한 화재의 확산과 유독성 가스의 발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100Mbps급 UTP케이블을 국산화하고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LAN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은 네트워크의 대용량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